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10. 14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운영지원과
담당	과장 권영현, 총무인사팀장 박원우, 담당 송재인(032-453-7133)

최상의 정주여건·경쟁력 갖춘 매력적인 도시 만드는데 최선

김진용 청장,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9주년 기념식서 밝혀

‘3高 시대’ 등 어려움 뚫고 송도 6·8공구 개발 등 현안 해결·미래성장 동력 확보 노력

-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를 비전으로 국제 비즈니스, 첨단 서비스산업 허브, 최상의 정주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김청장은 1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개최된 인천경제청 개청 19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.
- 그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19년 전 갯벌에서 홍콩, 상하이,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글로벌 경제 허브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열정으로 첫 삽을 뜬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이 이제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·고용 창출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으며 이같은 성과는 한결같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IFEZ 주민, 시민, 기업 및 유관기관, 공직자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.
-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동안 IFEZ는 2만5천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41만명으

로 증가했고 입주 사업체가 294개에서 3,300여개로, 외국인 투자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70%를 차지하는 141억 달러를 유치해 투자유치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.

- 김청장은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-19, 고물가·고환율·고금리 등 이른바 ‘3高 시대’,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경제자유구역 이점 희석 등 IFEZ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.
- 그는 앞으로 △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등과 연계된 경제자유구역 지정, △송도 6·8공구 개발, 청라시티타워 등 각종 현안 해결, △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, △송도 바이오산업의 바이오 메디-헬스-웰니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 도약, △최첨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- 김청장은 마지막으로 IFEZ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, 동참을 당부했다.
-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, 유공자 표창, 청장 기념사, 성과와 비전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‘송도신도시의 태동, 그리고 20년’을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.
- 한편 개청 19주년을 맞아 IFEZ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△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 배솔 과장, △인스파이어북합리조트 켈리 설리번 운영전략부사장, △(주)헤인이엔씨 주유돈 전무, △인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박주민 차장 등 4명이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.